

장정석 KIA 단장 '금품 요구' 불명에 퇴진

박동원 FA 협상 과정서 논란 "뒤틀린 요구" vs "농담일 뿐" KIA, 징계위 열고 해임 조치

박동원과의 FA 협상 중 금품을 요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장정석 KIA 타이거즈(KIA 구단) 단장이 1년4개월 여만에 불명에 퇴진했다. 장 단장은 계약 논의 과정 중 농담조라는 해명을 내놨으나 구단은 장 단장을 전격 해임했다.

29일 KIA 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 단장을 품위 손상 행위로 해임 조치했다. 앞서 장 단장은 지난해 말 박동원과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KIA 구단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은 이후 지난주부터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박동원은 장 단장과 두번째 면담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협 관계자는 "박동원의 녹음 파일에 장정석 단장의 금품 요구 정황이 분명했다"며 "선수가 직접 도움을 요청한만큼 비위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구단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KIA 구단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장 단장에게는 28일 오후 징계위원회 개최가 통보됐고,

KIA 구단은 29일 오전 소명서를 전달받았다. 소명서에는 '농담조'였다는 해명과 함께 사퇴 의사가 담겼다.

KIA 구단 관계자는 "금품 요구 제보를 받고 내부 진위 확인 과정을 거쳐 징계위원회 소집과 클린베이스센터 신고를 진행했다"며 "박동원은 금품 요구, 장정석 단장은 농담이라는 입장 차이가 있으나 구단은 해당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후 장정석 단장이 소명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구단은 사의 표명을 떠나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IA 구단은 장 단장의 해임 조치와 동시에 사과문도 발표했다.

KIA 구단은 사과문에서 "최근 불거진 장정석 단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KIA 타이거즈 팬 여러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개막을 앞두고 있는 KBO리그 전체에 누를 끼치게 돼 리그 모든 구성원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구단은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품 요구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북구 중흥도서관 개관 1주년 북구 중흥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중흥도서관을 색칠하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대형 캔버스에 그려진 도서관 밑그림에 색을 칠하고 있다.

29일 광주 북구 중흥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중흥도서관을 색칠하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대형 캔버스에 그려진 도서관 밑그림에 색을 칠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수협 측은 장 단장의 '농담조'라는 해

명에 곧바로 반박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장정석 단장이 부적절한 단어를 두 차례 사용했다. 한 번이면 농담이지만 절대 농담이 아니다"며 "시즌

도중 원정 숙소에서 선수를 따로 불러내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 심지어 정식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불법 사육시설에 갇힌 천연기념물

동물단체, 진돗개 15마리 구조 "진돗개 육성법 근본 대책 필요"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진도의 한 불법 개번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물단체를 통해 적발됐다.

29일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넷)에 따르면, 비구넷은 지난 2월부터 진도의 진돗개 사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농장 3곳에서 총 15마리의 진돗개(예비심사견 9마리)가 불법 사육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구넷은 이달 진도경찰과 함께 3곳 중 1곳의 불법 개번식장을 불시 점검, 뜬장에 갇혀있던 79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이

가운데 7마리는 진도에비심사견이었다. 예비심사견이란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를 부모로 둔 강아지들이 생후 6개월이 지나 '진돗개 혈통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을 의미한다.

비구넷은 추가로 조사한 1곳에서 이미 천연기념물로 인증 받은 진돗개 6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번식장의 주인이 진돗개 보호와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재청 소속 진돗개 심의위원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유영재 비구넷 대표는 "조사를 통해 진도와 문화재청에서 세심한 관리를 받아야 할 진돗개들이 되레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진돗



지난 22일 불시 점검한 진도의 한 개번식장에 있는 다수의 개들이 뜬장에 갇혀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개 보호 정책 등을 수립하는 심사·심의위원들이 진돗개들을 하나의 상업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마음을 숨

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심의위원은 논란이 커지자, '가까운 시간 내에 환경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진도에서는 지난 2020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이는 그간 변화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문화재청과 진도 등 관련 기관에서 진돗개 사육 시설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진돗개 육성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시설 등록이 되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문제가 적발·지적된 만큼, 실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구넷은 지난 15일 개농장주 등을 고발하고, 문화재청·진도 등에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등을 요청했다. **정성현 기자**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넘어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HAVE MORE FUN!

Life Food, Domino's.

도미노피자에서 가맹점 대표님을 모집합니다.

지역: 영광/완도/영암삼호/장흥/강진/진도

02-6954-3059 | **02-6954-3020**
 khgoo@dominos.co.kr | syoo@dominos.co.kr